

무안남약클럽,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국제와이즈먼 서해중지방 무안남약클럽(회장 김세훈)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만 원을 12일 무안군노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종복)에 기탁했다. (사진)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이번 전달식에서 장기요양 기관 대표들과 함께 각 기관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고충 등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봉성 군의원을 비롯한 회원들과 동행했다. 김세훈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사진)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과 유엔이 역사적으로 각별한 인연임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유엔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김민 기자 kdi@

한국 현대 연극 기틀 마련 광주 출신 김정옥 연출가 별세



극단 '자유' 등을 이끌며 60여년 동안 국내의 무대에서 200여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 한국 연극계의 '전설' 연극 연출가 김정옥(金正錫)씨가 17일 오전 5시7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4세.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서중(6년제)을 졸업한 뒤 중앙대 국문과에 들어갔다가 서울대 불문과로 옮겨 졸업한 후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불문학과 영화학을 공부했다. 1959년 귀국해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전임강사가 된 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극인의 길을 걸었다. 1963년 민중극장 창단과 함께 연출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1966년 극단 자유를 창립한 뒤 '따라지의 향연'(1966) 등으로 국내 대표적인 연출가로 부각됐다. 1980년대부터는 극단 자유를 이끌고 프랑스 등에서 한국 전통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1995년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ITI 회장이 된 뒤 3년 임했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또 2002년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 등급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코망뎬르를 받았으며 일본 넷케이 아시아상,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과 예술원상, 일민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나눔 행사



광주시의회는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 나눔에 나섰다. (사진) 이번 방문은 의회 차원의 설 명절 위문 활동의 하나로 의정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 관내 복지시설 8곳을 차례로 찾았다. 광주시의회는 장애인복지시설 프리지아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아동·장애인시설에 성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광주시 북구 빛산사그룹홈과 남구 굼두리사회에 2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나눔은 광주지역 아동·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흥영기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광주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센터장 조유근, 광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 제공>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15 MBC 뉴스특보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푸르기교실	30 푸르기 탐구생활
11	10 사랑의 가족(재)		15 건강의 재구성 섹터(재)	00 말하는 몸
12	00 KBS 뉴스 12	30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SBS 뉴스특보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5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55 특집 2시 뉴스 외전	45 특집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30 KBS 뉴스특보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버(재)		45 SBS 뉴스특보
3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4				
5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재)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건강 하우스 광있는 아침(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저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50 KBC뉴스와이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친밀한 리플리	05 생방송 영국복권 720+ 10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특집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더 로직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더 코리아인 세프
10	00 사이언스 위 50 KBS 뉴스라인W		1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2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재)
12	00 KBS 중계식	45 아이 러브 스포츠	00 MBC 뉴스 25 20 찬란한 너의 계절에 프리미어 35 리얼 라이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50 탑골스타 개칭이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PD로그(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민국
<말레이시아 별난 체류기 -행복하고 싶다면 이틀치럼>	12:10 건축탐구 - 집(재)	19:50 공룡 대탐험
07:00 꼬마마법사 주니오니	13:00 실특선 영화 - 천문	:1억 6천만 년의 모험 2-5
07:15 무지개강아지 달린의 모험	15:3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뽀뽀뽀 뽀로로	15:40 마사와 곰	<한국 농부의 필리핀 촌코스 -함께해서 좋은 곳 일로코스>
07:4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	15:55 블록스	21:35 한국기행
08:00 똥덩어리 똥덩어리	16:10 똥덩어리 똥덩어리(재)	<나의 이름은 4부 한강 어부, 선녀>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21:55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
08:50 슈퍼왕스 슈퍼콤보	17:00 페파 피그	22:45 EBS 다큐프라임(재)
09:20 도레미 프렌즈	17:10 나의 비밀친구 해치(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명의	17:2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7:40 티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9일(음 1월 3일 甲子)

<p>48년생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기대해 왔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60년생 순리에 벗어난다면 불행할 수도 있다. 72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84년생 운과 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96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08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95</p>	<p>42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실용력을 갖게 되리라. 54년생 조짐이 보이던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66년생 제반 여건이 결합되어 제3의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90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02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09, 92</p>
<p>37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49년생 진행 방향은 바르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61년생 넘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73년생 원칙과 순서에 따라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초기 정황이 전체적인 판국을 좌우하리라. 97년생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2, 51</p>	<p>43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어나가리라. 55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로 판단할 일이다. 67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79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91년생 근사치가 될 것이니 만족할 만하다. 03년생 작각한다면 큰 자질이 빛어진다. 행운의 숫자 : 37, 81</p>
<p>38년생 조용한 가운데에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50년생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2년생 적절한 절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74년생 필히 경험자나 안내자와 함께하라. 86년생 손재주가 비치니 제반사에 조심해야겠다. 98년생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3, 53</p>	<p>44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슬모가 없다. 56년생 보고도 차지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겠다. 68년생 가까운 이와의 사이에 발전적인 일이 생기겠다. 80년생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92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04년생 총천하를 기세로 크게 번창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91</p>
<p>39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달려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51년생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던 바가 계기가 되어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할 사건이 발생한다. 63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다. 75년생 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87년생 황재수가 보인다. 99년생 과도함은 속히 정산하라. 행운의 숫자 : 06, 63</p>	<p>45년생 관망만을 앞세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57년생 말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리라. 69년생 원칙적인 기준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81년생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93년생 혁신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리라. 05년생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20, 65</p>
<p>40년생 다수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52년생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다. 64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 갈 것이다. 76년생 쉽게 잠들지만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88년생 완성도의 차이로 인해서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00년생 물줄기가 세차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물레방아는 돌 수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9, 71</p>	<p>46년생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58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70년생 어무지 게 마무리하고 나야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82년생 종합적으로 실행해야만 순조로운 양상이 될 수도 있다. 94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즉시 연락해 봐야겠다. 06년생 황당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82</p>
<p>41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53년생 해묵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느낌보다는 사실적 정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77년생 방심했다가는 약재들이 겹쳐질 수도 있다. 89년생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01년생 기대치에 못 미쳐 실망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48, 76</p>	<p>47년생 평생을 한 번 울까 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찬스가 될 수 있다. 59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 71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리라. 83년생 서로 인연이 박하니 억지로서는 아니 되느니라. 95년생 막연하다면 무의미하다. 07년생 뜨거운 화젯거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 56</p>